

##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천병태, 이효상 의원 공동 대표발의)

의안 번호	<b>1350</b>
----------	-------------

발의연월일 : 2017. 5. 11.

발 의 자 : 천병태, 이효상 의원

외 2명

### 1. 주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은 주민고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이 현행 유지토록 조치 바랍니다.

### 2. 제안 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조사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감소(1.842→0.942km<sup>2</sup>)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소음피해는 그대로이며 훈련용비행기 운항으로 체감 소음이 높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 3. 이송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

부산지방항공청은 4월 28일 울산공항 소음피해 축소 고시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요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조사 결과, 울산공항 소음 대책지역 면적이 약 50%감소( $1.842 \rightarrow 0.942\text{km}^2$ )되었습니다.

KTX울산역 개통으로 항공기 횡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운항 횡수는 줄었다고 하나 대당 비행시 소음도는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울산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항공기가 증편되면 소음등고선에도 자동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훈련용비행기 운항으로 새로운 민원이 귀 기관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항으로 말미암아 고도제한에 묶여 이미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지원비는 한푼도 못 받게 되고 간접 지원조차 줄어들게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은 현실을 반영하여

첫째,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재의 직·간접지원비의 액수를 그대로 유지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곳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